

## 성공을 향한 우선순위

**비** · 풍 · 초 · 풍 · 팔 · 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언뜻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이다. 사실 연관성 뿐 아니라 형이상·하학을 따지지 않더라도 장소와 수준과 규모의 격차가 있는 말이다. 음습한 골방에서 질펀하게 펼쳐지는 노름판에서조차 버려야 할 때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국가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다.



‘피플 스킬 People Skill’의 저자 레스 기블린(Les Giblin)은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단어를 ‘나는 ~’, ‘제가~’가 아니라 ‘당신이~’ ‘선생님께서~’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모든 사람은 ‘나 자신(self)’에 유일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입대 경쟁률이 3:1 ~ 9:1 정도로 인기가 높은 해병대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지원해 가는 이유가 일명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나(self)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몰입에 분명하다.

이렇게 '나 자신(self)'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경영, 자기관리에는 소홀하다.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큰 돈을 벌며 성공하는 사람도 자기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 낙마하게 마련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대법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2000년 도입된 이후 이번까지 11명이 청문회에 걸려 낙마했다. 낙마 이유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병역 기피, 탈세와 이런 비리를 숨기려다 나온 거짓말이다. 대부분이 정직과 자기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복권과 같은 갑작스런 행운을 손에 진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ABC 뉴스에 의하면 복권 당첨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브 데니시는 그동안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들을 쫓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족 중에 온전히 같아지지 않고 전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키네스 파커와 코니 파커는 2천5백만 달러 재산을 터뜨려 횡재했다. 대신 이들은 16년간 지속했던 부부 사이에서 돌아섰다. 제프리 뎀피어는 2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얼마 안 가 형수에게 유괴되고 살해되었다. 2002년 잭 휘태커는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개인 당첨금 수령을 기록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약 5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도박과 음주 혐의 체포, 강도와 도난, 손녀 딸의 죽음 등으로 인생이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는 성공은 이루기 어렵고 이룬다 해도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 꾸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필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신입사원 시절 350여 명의 입사 동기 중 그리 우수한 그룹에 속



하진 못했다. 지극히 평범했고, 학점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특기란 축구를 약간 하는 것 외엔……. 그렇게 시작한 10여 년의 조직 생활에서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회사를 통해 배운 '자기관리(셀프리더십)'였다.

이후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3년 6개월간 보험 세일즈를 경험했다. 첫 달 급여 1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평균 수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 영업 조직에선 실적이 좋으면 존경(?)을 받는다. 수많은 지점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 비결을 이야기 해 달라고…….



비밀한 고수의 비결은 없지만 나만의 20여 년 자기 관리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그랬다. 20여 년간 시간의 가계부를 지금껏 써 왔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보단 나 스스로의 목표(평생목표, 연간목표, 월간목표, 주간목표, 일간목표)를 종이에 써 관리했고, 약 150여 권이 넘는 지식 바인더(매뉴얼)를 만들었으며, 업무와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수첩(바인더)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했다. 미려한 곰치림 20여 년간 해 온 자기관리가 주변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도구와 세미나로 만들어졌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또는 이룬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토마스 J. 스탠리 조지아대학 교수의 저서 'The Millionaire Mind(백만장자 마인드 1, 2 북하우스 출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스탠리 박사는 미국의 실제로 성공한 733명을 인구 통계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중에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 30가지를 우선순위로 정리 발표했다. 지면상 1~5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위: 성실성-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 4위: 내조/외조를 잘 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 3위: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공동1위: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 공동1위: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대목은 30위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공동 1위가 '정직' 과 '자기관리' 라는 말에 존경심과 숙연함까지 갖게 한다.

정직과 자기관리가 성공을 향한 우선순위 No.1 이다.

10여 년의 조직 생활에서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회사를 통해 배운 “ 자기관리(셀프리더십) ”



강규형

(현) (주)3P자기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현) 독서포럼 '나비' 창립자 및 대표  
 (전) yCBMC 총연합회장  
 (전) 푸르덴셜 라이프플래너(MDRT 3회 연속 달성)  
 (전) 이랜드그룹 푸마사업본부장